

Immediate implants placed into infected sites: a case report

김현종
가야치과병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이제 일상적인 임상과정 중 하나가 되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외과적 단계를 줄이고 치료를 종결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인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의미있는 점은 지연 식립시 발치와의 생리적인 치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골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특히 감염부위 등의 임상적 상황들은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금기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임상적 경험들에 근거하여 적절한 술전, 술후 처치를 시행하고 수술 중에 발치와의 철저한 debridement가 시행된다면 만성염증부위에서의 성공적인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주장되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periodontal infection 혹은 endodontic infection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몇가지 임상 증례들을 보고하고자 한다.

연자 약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치주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가야치과병원 원장